

# 고창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모색

갯벌학교·브랜드 용역 보고회  
생태교육프로그램 의견 수렴  
갯벌 등 관광 가치 높이기 토론



고창군의 '갯벌학교 및 브랜드캠페인 용역 결과보고회'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고창갯벌 등 세계자연유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창군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사업인 '갯벌학교 및 브랜드캠페인 용역 결과보고회'가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까지 병행된 보고회는 용역 결과 보고와 고창갯벌학교 프로그램 시연, 활동사진 및 영상자료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갯벌 생태교육프로그램의 개선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고창갯벌 유산관광 모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고창갯벌학교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67차례, 1230명이 참여해 월별로 고창갯벌의 바지락, 해양쓰레기, 철새 등을 주제

로한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 모양성제, 새만금 쪼뽀리 등 고창군 대표 행사에 참가해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창갯벌의 가치를 홍보했다. 생태교육센터 함께지구 최선하 대표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브랜드를 확립하고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이 찾고 싶

# 고창 기본형 공익직불금 오늘부터 지급

1만3072농가에 372억원... 전년보다 대상 늘어

고창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1만3072농가, 지급액 총액은 372억원 규모다.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 3년간 1회 이상 쌀·보리·조식·콩·팥 등 농산물 직불금을 정상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지급대상 농가가 1100여 농가가 늘었고 지급액도 12억원이 증가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산비 상승과 여름철 호우 피해 등으로 농업 소득이 감소한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수여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국내 16번째... 도전 10년만의 결실



남원시가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남원시는 지난 27일 문화재청 주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9월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내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가야고분군은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1년 1월 유네스코로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후 유네스코 자문·심사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실사 등 까다로운 심

사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실제 등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도전 10년 만의 결실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화계 및 시민과 함께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 문화유산을 새롭게 찾아내고 조사·연구하는 등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세계인이 전복 가야문화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 한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은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과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치매안심가맹점 약국·미용실 등 신규 5곳 지정

정읍시가 치매안심가맹점 약국·미용실 등 5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약국과 미용실 등 5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치매안심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읍에는 현재까지 총 26개소 치매안심가맹점이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무한리필두판 정읍점과 미강마트, 현대의료기상사, 수순미용실, 도운약국 등 5곳이 지정됐다. 신규지정 가맹점들은 앞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며 치매극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은 개인사업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약국과 미용실 등 5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읍시 제공>

# 남원시,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다음달 7일까지 150명...요양보호사 등 복지시설 배치

남원시가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50명을 다음달 7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된 '일반형'과 복지일자리인 '참여형'을 비롯해 발달장애인과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인마사 파견 등 '특화형'까지 3가지 유형으로 선발되며 공공기관 또는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다. 시는 장애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으로 차

별 해소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소득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험·채용코너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일정은 사업 유형 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농업 은퇴자 치유 돕는 힐링 프로그램

시니어 19명 3달간 10회 진행...우울증 감소·삶의 질 향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은퇴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추진한 '시니어 정신건강증진 힐링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 후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을 겪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통한 심신계

을 통한 원내활동 체험, 반려식물 친구만들기 활동 등이다. 농업기술센터가 참여 시니어들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울감은 17.7% 감소했고, 우울증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의 사회적 요구 증대에 맞춰 앞으로도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 옥상스틸방수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건물 리모델링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301호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